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35

# 르네 마그리트전과 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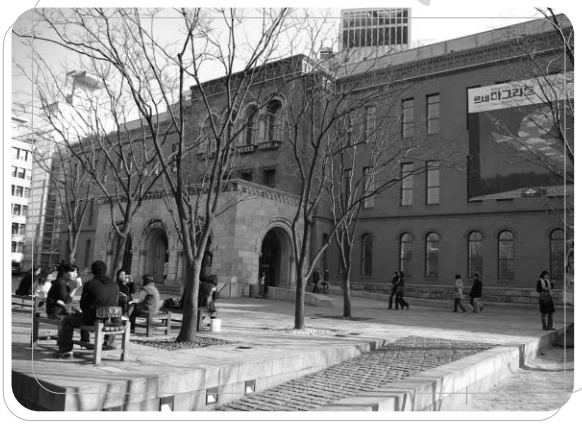
지난 겨울, 삭풍(朔風)이 제법 매서운 평일 정오 무렵, 정동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 르네 마그리트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화가이고, 그의 도록도 몇 권 가지고 있지만 미술관에서 원본의 아우라를 접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였기에 설레임을 안고 그곳을 찾았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아닌 서울의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닌가. 고맙게도 한 미술잡지에 원고를 쓴 인연으로 초대권도 생겼다.

그런데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미술관이 너무 붐볐다. 평일에, 이처럼 쌀쌀한 날씨에 왜 이리 관람객이 많은 것일까? 우리 문화수준이 정말 높아진 모양이다. 주최측으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시실로 들어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달라진 현상 중 하나는 '전시'가 전문 이벤트 업체들의 주요사업이 되었고 덕분에 전시회들이 대단히 세련된 '이벤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네 마그리트전은 언론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여느 전시회보다 훨씬 많은 물량과 다양한 기획을 시도한 대형이벤트다.

전시실 구성 자체도 구조, 조명, 배치 등에서 기획력이 돋보였지만, 작품액자가 걸린 벽면을 액자의 프레임과 매트 모양처럼 살려 작품을 액자 속의 액자로 만든 점이 신선했다.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o@naver.com




전 세계에 흩어진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모아 무려 270여점을 선보였다는 전시규모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전시장을 다 돌아보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많은 작품 중에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 유명한 작품은 대부분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저명한 작품들은 유명미술관 소유이거나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었으리라. 사실 이 작업만으로도 전시회 주최측의 노력은 최선의 것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마그리트의 작품은 대부분 연작시리즈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다.

어쨌든 전시장을 다 돌아보고도 아쉬운 마음에 미술관의 회랑을 돌다가 문득 공지문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진중권씨가 강연하는 르네 마그리트 작품설명회, 또 하나는 '마그리트와 함께하는 창의력 교실' 안내였다. 아하, 미술관이 이토록 붐비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전시실에 있던 관람객 중 절반 넘게는 초등학생들이었고, 그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였다. 인상주의 화가도 아니고 피카소나 달리처럼 잘 알려진 화가도 아닌데, 르네 마그리트 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니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구나 생각하던 자부심은 순식간에 스러지고 말았다.

결국 모든 것은 논술 때문이었다. 진중권씨의 강연은 인터넷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었고 주최측이 강남 사설논술학원과 함께 기획했다는 '마그리트와 함께 하는 창의력 교실'은 그야말로 만원사례라 한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 2003년 연세대 논술시험, 2004년 수능시험에 출제된 탓이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을 쓴 미

셀 푸코를 위시하여 많은 지식인들은 존재와 인식을 다룬 마그리트의 작품세계가 가진 철학적 문학적 깊이에 매료되었다. 그의 작품은 가장 현대적이기도 한데 때문에 그의 '빛의 제국'과 같은 작품은 소설가들의 작품에 종종 인용되었고 영화, 디자인, 문학, 건축 등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는 알게 모르게 마그리트의 작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그의 작품이 갖는 무게가 만만치 않으니 논술문제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논술 덕분에 르네 마그리트전이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광고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던 마그리트는 광고를 지극히 혐오했다고 한다. 광고로 밥벌이를 했을지언정 상품미학을 혐오했던 마그리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상품성 높은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의 작품 전시는 오히려 광고보다 더 상업적인 면모를 갖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논술은 최근 입시의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이 되면 논술이 수능을 제치고 입시의 중심이 된다.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수능은 등급체계가 9단계로 조정되어 실질적인 변별력을 잃게 되고 통합논술의 실시와 논술비중 확대로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의 계급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교육부와 학부모의 공통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대안으로 등장한 논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엉뚱한 합작품이 된 것이다.**

사실 · 논술이 모든 대학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상위권 몇몇 대학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논술은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본고사 체제로 활용되고 있다. 수능은 그 이름에 걸맞은 수학능력시험, 대입자격시험, 즉 예비고사가 되는 셈이니 논술의 이름으로 부활한 본고사야말로 엘리트의 선별과정이자 명문대학이 주재하는 대학입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에서의 계급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교육부와 학부모의 공통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대안으로 등장한 논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엉뚱한 합작품이 된 것이다. 사실 논술이 실제적인 본고사로 부활했지만 어떤 사회집단도 논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한다. 논술은 적어도 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입시경쟁을 가치있는 능력의 함양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교육현장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가치있는 비전이다. 21세기는 통합의 시대다. 인문학과 자연학의 만남,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 이뤄지고 거침없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이므로 이제는 학제간의 구분없이 넘나들 수 있는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술은 교육부는 물론 일선 학교나 학부모, 그리고 논술의 주체인 대학 측에게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날로 팽창하고 있는 논술 시장과 사교육비의 부담도 문제지만 논술의 규격화는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누구나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창의적 사고력 함양' 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력이 과연 기능적인 교육과 시험을 위한 논술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치 토익이 그런 것처럼 시험을 위한 맞춤형 논술교육은 이미 논술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나온 모의 논술 문제를 본 적이 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과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비교해서 인간의 이성에 관해 논하라' 뭐 그런 문제였는데, 과연 대다수 고등학생들이 이 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설사 모범답안을 쓸 능력이 있다해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분명 논술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다이제스트 요약문을 읽히고 논술 글쓰기 요령을 배운다고 창의력, 비판력이 성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들에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전에 지식부터 전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언어감각과 독해력, 논리와 통찰력은 어린 시절부터 책이 주는 감동을 통해 배양된다. 논증과 토론능력 역시 논제를 다루고 입증, 반론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 법. 풍부한 교양을 위해서는 독서와 토론 이상이 없다.**

논술과 토론, 글쓰기를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문학적 감성과 역사, 철학을 체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현대의 제 문제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전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감각과 독해력, 논리와 통찰력은 어린 시절부터 책이 주는 감동을 통해 배양된다. 논증과 토론능력 역시 논제를 다루고 입증, 반론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 법. 풍부한 교양을 위해서는 독서와 토론 이상이 없다.

그러나 빠듯한 학습일정에 시간을 쪼개어 억지로 책을 읽고 요령에 따라 억지로 논지를 만들고 그 글을 첨삭 받는 아이들이 과연 책읽기,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몇 해 전 가까운 교수 한 분이 시인 백석의 「바람벽」이라는 시를 고등학생 자녀에게 보여주었더니 아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몇 년 전 논술에 나왔던 시라고 감상을 대신하더라고 한

다. 한편의 시가 가진 정서와 느낌을 논술의 예시문으로만 대해야 하는 상황이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적성을 가진 독서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시험을 위한 공부는 즐겁지 않은 법이다. 독서영재라는 목표를 위해 경쟁하듯 아이에게 책을 떠안기는 현실이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쨌든 논술열풍으로 인해 논술시장은 사교육시장의 거대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동산문제가 대표하듯 교육은 단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굴절된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 우리사회의 이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덫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뿐일 것이다. 소위 386세대나, 혹은 고학력여성들도 자신의 자녀문제에 맞닥뜨리면 이 어처구니없는 교육시스템의 횡포에 굴복하고 만다. 아이를 외국에 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상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사회구조 속에서는 독야청청 소신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엄청난 사교육비와 에너지, 시간을 투자하는 논술 교육과 리더십 교육이 정말 진정한 이 사회의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녀의 라이프플래너, 혹은 매니저로 나선 열혈부모들이 모든 학습일정을 짜고 학원스케줄을 조정하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원을 순례하는 지금의 교육 형태는 리더가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를 기르는 것이다. 이들이 각가지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재하고 이끄는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부르디외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적 자본, 상징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소유한 자들은 소속계급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계급과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자본은 세습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교육의 격차와 문화적 자본은 더구나 공고해진다.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 사회에서 리더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인 책임과 다문화에 대한 인성교육이 논술교육에 앞서는 것이 아닐까.